

“위안부 문제, 일본의 진정한 사과 받으려면 광주시민 관심 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버팀목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2000년 봉사하며 인연... 전국 누비며 아픔 달래줘 광주 전시회 예정... 할머니들 지지성명 동참해 주길

“일본 아베 정권의 극우 인사들과 국내 몇몇 논객들이 망언을 일삼는 사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54명이 모두 눈을 감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으려면 민주·인권도시 광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을 14년 동안 지켜온 안신권(53) 소장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시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

사단법인 나눔의 집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위안부 할머니 아홉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으로 끌려갔던 소녀들은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전쟁의 포화 소리가 멈춘 후에도 이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소녀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조국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돌아온 이들을 ‘화냥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이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피해자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못했다. 정처없이 방황하며 삶의 무게를 오토이 홀로 버텨내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나눔의 집. 지난 2001년부터 이곳

에서 할머니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안 소장은 나눔의 집이 생기기 전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혹한 삶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받은 것은 구호가 아니라 냉대였습니다. 분명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인데 죄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울막에 숨어서 낄낄거리고 근근이 생활하는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지난 1992년 전국민적인 모금활동이 시작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나눔의 집입니다.”

지난 2000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평범한 가정으로 살던 안 소장. 그가 나눔의 집과 인연을 맺은 것은 우연히 이곳을 방문하면서부터다.

“당시 나눔의 집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사죄하려는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찾아오는 방문객들 때문에 통역을 도와줄 직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돕고 있는 이가 한국으로 유학온 일본 여대생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힘들다’

며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제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나눔의 집 총무로 인연을 시작한 그는 결국 이곳을 책임지는 소장이 됐다. 현재는 전국을 누비며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아픔을 달래주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 소장도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나눔의 집이 알려지면서 소액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5000원, 1만 원씩 성금을 보내주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은 열악한 상황이다. 힘든 여건에서도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그림 그리기 수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김순덕·배춘희·강덕경 할머니 등이 화폭에 담은 기억들은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림을 배우지 않았지만 20여 점의 그림을 통해 그동안의 아픔과 실움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은 지난 2000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2001년 일본 오사카 인근 박물관에서 전시됐다. 한양대 박물관은 오는 24일까지 ‘울림’이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 최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란 주제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린 회화작품 14점과 할머니들의 유품 등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료 및 해외 증언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안 소장은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도 조만간 전시회를 개최해 볼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그에 합당한 배상

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시민도 안타까워하고 말 것이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 지지성명에 동참하고 SNS에 한 줄이라도 의견을 올려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개선을 요구할 때, 일본도 달라질 것입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목포경찰, 이금만 경위 등 퇴임식 행사



목포경찰(서장 안동준)은 지난달 30일 경찰서장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금만 경위 등 10명의 퇴임식 행사를 열었다. <목포경찰 제공>

고흥녹동새마을금고, 길거리 청소 봉사



고흥녹동새마을금고(이사장 김원주)는 최근 새마을금고 자원봉사의 날을 맞아 고흥 녹동항 일원에서 임직원 30여명과 길거리 청소를 실시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국제로타리 3710지구

김광태 총재 취임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1일 광주신안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임 김광태(55·한진래미콘 대표이사·사진) 총재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각 지구 클럽 회장단과 회원, 유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를 실천해 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2014~15 총재로 취임한 김 총재는 “개척이 아닌 개선 즉, 트렌드를 바꿔서 변화하는 지구가 되고, 각 클럽 역시 창의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나주 출신으로 제주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경영자과정 등을 수료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신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신옥테크, 인애동산에 태양광 LED 가로등 기증



신옥테크(대표이사 박인철)는 1일 광주 남구 봉선동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원장 이애신)에서 ‘태양광LED가로등 기증식’을 개최하고 가로등을 기증·설치했다. <나당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무 매일식품 대표이사 ‘산업포장’

순천의 장(醬)류 제조기업인 ㈜매일식품의 오무 대표이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열린 강연 식문화와 고용창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오 무 대표는 중국 상해의 500여개 대형마트에 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한국 장류의 우수성을 20여개국에 홍보하고, 매년 20% 이상의 기업성장을 주도하며 한식문화의



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계화와 장맛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매일식품은 지난 1978년 창업,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9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22개국에 제품을 수출중인 지역 대표 장류 제조 기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인사

- ◆전남대 ▲박물관장 표인주(국어국문학과 교수)
- ◆문화재청 ◇과장급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학예연구관 이상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서기환 홍창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학예연구관 박종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고성춘·박국신씨 장남 영진군 안병희·정순이씨 차녀 윤경양=피로연 4일(금) 오후 5시 30분 S타워컨벤션 4층. 13일(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연구공원 1층 본관 웨딩홀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월례회=5일(토) 오후 6시 금강산사당 062-224-0808. ▲학교법인 유은학원 총동문회(회장 전주인) 201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8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능성동 아페스타웨딩홀 062-361-2680.

종친회

▲전주 강씨 광주·전남 통정공 총회=3일(목) 오전 11시 진주 강씨 회관 3층 대회의실 010-2378-0070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

원 이화회(회장 이승봉) 월례회=8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일 회의실3층 062-225-5636.

알림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정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할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모집

▲디자인 스킵 제작 판매과정=전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스쿨 국

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작위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자원봉사자 후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동그라미 언어학습센터=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부음

▲이남순씨 별세 안홍철·현주씨 모친상=발인 2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삼가 故인의冥福을 빕니다

<p>210호 故송관식 남(남/64세)</p> <p>子/子婦 : 송원석/송원희, 송연정/박병준, 송경연</p> <p>未亡人 : 김숙희</p> <p>·발 인 : 7월 3일</p> <p>·장 지 : 담양천주교묘지</p>	<p>301호 故민현덕 남(남/68세)</p> <p>子/子婦 : 구재관/정미화</p> <p>未亡人 : 김숙희</p> <p>·발 인 : 7월 2일</p> <p>·장 지 : 청룡면 세창리 선영</p>
<p>401호 故강연희 남(남/79세)</p> <p>子/子婦 : 함정호/김영선, 함광호/김명선, 함병호/이현주</p> <p>未亡人 : 함정호/김영선</p> <p>·발 인 : 7월 3일</p> <p>·장 지 : 영락공원</p>	<p>101호 故하동춘 남(남/80세)</p> <p>子/子婦 : 이미숙, 하완호/송미경, 하경호/최지연</p> <p>未亡人 : 하완호/송미경</p> <p>·발 인 : 7월 2일</p> <p>·장 지 : 영락공원</p>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